제6강 [의미론] 푸코와 들뢰즈의 새로운 언어론

(1교시) J_Jwlee02_040105_02

◎ 언표와 담론

미셸 푸코는 명제의 차원에서 **언표**의 차원으로, 이론의 차원에서 **담론**의 차원으로 눈길을 돌림으로써 문화-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.

미셸 푸코 (1926~1984)

푸코의 언어관: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형상설적 구도로 바라봄. 언어란 하나의 질료에 문법적 형식이 주어짐으로써 형성된다. 고급 언어일수록 주어지는 형식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.
기존의 철학은 질료로부터 매우 높은 담론만을 다뤄왔다. 푸코가 그 지평을 질료 가까운 곳까지 끌어내리며 명제가 아니라 언표를, 이론이 아니라 담론을 제시한다.

◆ 언표의 네 가지 조건
1. 지시 대상의 존재: 모든 언표는 언표 바깥을 지시한다.
2. 언표 주체: 모든 언표는 언표 주체를 전제한다.
3. 방계 공간: 모든 언표는 홀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연결된다.
4. 물질성: 모든 언표는 제도적, 권력적 맥락을 함께 가진다.

◆ 언어철학을 통한 서구 문화사의 새로운 해석
1. 르네상스 시대: 언어가 상징으로서 기능한다. = '유사성'
2. 고전시대: 합리주의 등장과 함께 언어가 기호로서 기능한다. = '동일성과 차이'

→ 푸코는 하나의 같은 텍스트가 시대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지듯 시대마다 고유한 지배적 언어, 언어에 대한 일관적 태도가 있다고 보았다.

www.artnstudy.com

(3교시) J_Jwlee02_040105_03

◎ 들뢰즈- 사건, 의미, 권력

질 들뢰즈 (1925~1995)

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는 사건 개념과 의미 개념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론을 제시했다.
일반적으로 '의미'가 명사, 형용사 구조로 표현된다면, 동사로 표현되는 '사건'은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. 그 이유는 동사, 즉 사건은 움직이고,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고, 그것은 곧 이데아와 반대 개념이기 때문이다.
그러나 들뢰즈에 의하면 **기존의 전통적인 의미론, 즉 지시 이론, 현시 이론, 기호 작용은 사건을 제대로 포착해주지 못한다.** 의미는 사건과 동시에 발생한다.
이때 의미가 본격적으로 성립하려면 사건들 사이의 계열화가 있어야 한다.
"사건은 물질적 변화에 부대하고 언어화된 의미에 의해 표현된다."

◆ 들뢰즈와 가타리의 언어론

들뢰즈와 가타리는 언어학과 정치학을 결합해 독특한 언어론을 전개한다.

발화수반행위(illocutionary act): 모든 언어적 표현에는 일종의 주체화(subjectivation) 행위가 수반된다. 즉, 인간의 모든 언어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태도, 감정, 상황 등 주체화를 함축한다. 이 주체화는 '기호 체제' 안에서 성립한다.

언어는 사건과 맞물린다. 언어는 더 이상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.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발생하는 것 뿐 아니라, 언어가 사건에 개입해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. 이때 사건은 '비물체적 변환'이며, 이는 언어만 가지고서는 안되고 **기계적 배치와 언어적 배치의 교직**이 이루어져야 한다.

www.artnstudy.com